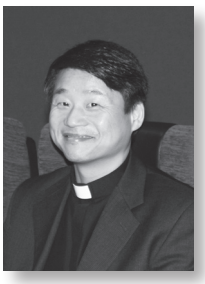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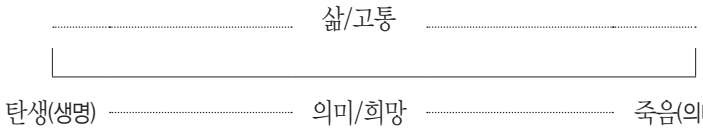
삶을 돌보는 죽음

정무근
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임상사목교육센터





1. 삶

⑴ **사랑으로 축복 받은 생명; 창세기 2; 4–7**

'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구절'

- 하느님의 인간에 대한 지극한 정성과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다.
- 우리 인간의 영혼은 '하느님의 영(입김)'과 결합되어 있고 늘 함께 있다는 표현으로 하느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는 분리 될 수 없는 영원한 관계라는 것이다.

* 이처럼 '하느님과 인간의 관계'가 위의 성서 구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'**사랑의 관계' 그 자체**인데 이러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'생명'은 얼마나 축복 받은 것이겠는가?

⑵ **생명에 '의미'가 부여된 삶; 모세의 이야기 – 출애굽기1 – 3**

일단 인간에게 생명이 주어져서 살아가게 되면 '**모든 인간의 삶은 그 생명 때문에 가치로운 것이며 의미가 있는 것이다.**'

- '버려진 아이의 삶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려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신 것이다.' 다시 말하면, '하느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모든 인간의 삶에는 하느님께서 특별히 부여하신 나름대로의 어떤 의미가 있다'

⑶ **생명에 희망이 부여된 삶; 새옹지마, 요셉의 이야기**

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'**삶의 의미'를 추구해 나가는 과정**에서는 피할 수 없는 순간들 즉, **실패와 좌절을 맛보는 순간**들이 너무나 많다.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순간들이 너무나 힘들어 '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는 마음'을 먹기도 한다. 이러한 실패와 좌절을 겪어야만 하는 우리의 삶에서 꼭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**희망을 가져야 한다**는 것이다.

2. 고통

인간의 삶과 죽음사이에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. 다시 말하면, 우리가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

기 할 때 고통을 뺀다면 '**바람 빠진 풍선을 가지고 노는**' **것**과 같을 것이다. 이처럼 고통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과 늘 함께 붙어 다니면서 때로는 우리를 좌절시키지만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기도 한다.

⑴ **고통의 정의;**

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근원적인 경험으로서 독특한 개인적인 특성이 있으며 시간, 공간의 영향에 관계없이 자신의 내면적인 요인,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 및 외부 환경,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와 관련된 상실, 훼손, 통증이 자아의 완전성을 유지하는데 위협이 될 때 경험되는 **견디기 힘든 극심한 괴로움의 상태**이다. 그리고 이 고통현상을 이루는 요소에는 슬픔, 우울, 절망감, 비참함, 죄책감, 위축감, 무력감, 두려움, 불안, 분노 등이 있다.

⑵ **고통에 의미를 부여했던 욥의 삶; 욥기**

많은 사람들이 "하느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왜 우리 인간에게 그 많은 비참한 고통들을 있게 하시나요?" 라는 질문을 자주 한다. 특히 우리는 환자로부터 이러한 질문을 거의 매일 듣는다. 사실 이것은 아무도 정답을 말 할 수 없는 질문이다.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딛고 극복했을 때는 그 순간이 **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각자의 인생에 있어서 큰 의미와 가치를 주었다고 고백한다.**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에 대해서 논할 때 **고통자체만을 보지 말고 고통안에 담겨있는 의미인 우리와 하느님과의 관계를 보아야하지 않을까?** 욥의 고통의 여정이 바로 이러한 것을 말해주고 있다.

⑶ **고통 중에 삶의 희망을 되찾았던 토비트 가족; 토비트서**

토비트서에 나오는 토비트와 그의 아내 안나, 그의 아들 토비아 그리고 나중에 며느리가 된 사라와 그의 아버지 라구엘의 이야기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으며 우리가 돌보고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.

3. 죽음

인간이면 누구나 다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꺼려한다. 왜냐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느낌이나 인식은 '**어둡고, 희망이 없으며 모든 것이 끝나버린 상태**' 이기 때문이다.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빼놓을 수 없듯이 **인간의 운명인 죽음 또한 피할 수 없음**을 우리는 잘 안다.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'어둡고 모든 것이 끝나버린 상태'로 여기는 이유는 '**죽음 또한 나름대로의 의미와 희망이 있음**'**을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이다.**

⑴ **죽음의 정의;**

의학적으로 죽음의 정의는 '**심장기능 및 호흡기능과 뇌반사의 불가역적 정지 또는 소실**을 말한다. 즉 심, 폐, 뇌기능의 영구적인 정지'를 말하는 것이다. 그러나 사실 죽음을 앞둔 환자들이나 그 가족들에게 있어서 죽음의 정의는 그 이상의 것이다. 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'**사랑하는 이와 영원히 이별시키는 잔인한 것**'으로 여겨지며 특히 남겨지는 가족들에게는 '**절망과 함께 앞으로 살아갈 희망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**'으로 여겨진다.

⑵ **남겨진 이들에게 의미와 희망을 안겨다 주는 죽음; 모세의 죽음**

모세에게 **자신의 죽음은 자신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위한 하느님 축복의 의미였으며 하느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자신의 후손들을 끝까지 돌보리라는 희망**을 주는 것이었다. 한편, 모세로부터 이와 같은 축복을 받은 **후손들에게도** 모세의 죽음은 '어두운 희망의 끝'이 아니라 '**그 동안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하느님 사랑의 상징**' **이었고**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'**그 사랑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 될 것이라**

는 희망'을 가졌던 것이다.

⑶ **죽음에 또 하나의 희망을 부여하는 종교**

'사람은 왜 태어나고 왜 죽는가 그리고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나?'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종교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고 종교는 이러한 질문에 '희망'을 줌으로써 대답을 하려고 한다.

가톨릭 교회에서 '**죽음은 최종적으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께 일치되는 순간**' 이라고 믿는다.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로 그것이 진리임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다.

'**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서도 다시 만난다**' 는 희망을 가진다. 이러한 희망은 임종을 앞둔 환자들이나 그 가족들에게 '**죽음이 영원한 이별의 순간이 아니라 다시 만날 약속의 순간**' 이라는 것을 믿게 하여 '의미 있는 죽음'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.

이러한 믿음과 희망을 가진 가톨릭 의료진/봉사자로서 임종환자와 그 가족들을 영적으로 돌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**임종환자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자신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'죽음'이 '어두운 희망의 끝'이 아닌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과 '죽음은 새로운 시작의 순간' 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.**